

여성들이여 일상에 시비를 걸자!!

여성주의 자치모임 "1312"

8월(6호) 소식지

'1312' 는

여성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여성주의가 너무나 아름다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여성들끼리

뭔가 신나는 일을 저저르고

싶어 모인 곳이다.

◎ 고정희 시인 추모식을 다녀와서 ◎

<시인 고정희의 귀신을 만나러 가다.>

랑네

지난 6월 27일 "여성주의 카페 <고마>"에서는 한판의 제령의식이 벌어졌다. 이 좇 같은 세상에서 우리들이 잘 살기 위해 귀신 고정희님의 힘을 얻어보자는 그런 곳 한판이었다.

마녀의 리나언니와 그외 여러 다른 서울 마녀들이 이 곳 판을 준비 했었는데, 詩를 가지고 랩도 할 수 있고, 퍼포먼스도 할 수 있다는 것에 쇼크!!! 여성의 문화는 이러한 반짝이는 창조성에 있었다. 언제나 딱딱하고 진지한 詩를 가사로 랩(1996. 그들이...)으르 만들어 부르다니! 그리고 서울 바닥에서 시인 고정희의 시 낭송대회 <?>의 인기상을 탄 뽕뽕이에게 박수를!

지난 학기에 올 학교에서 강연을 하셨던 고미라 (선생님?) 언니? 의 퍼포먼스는 정말로 가부장제에서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을 실감나게 표현을 했었다. 가부장제를 꼬라보는 언니의 눈빛은 얼음 짱 같았다. 배경음악이 "신해철의 월광"이라서 더욱 좋았는지도 모른다.(? ^ ~!)

이대에서 무용을 전공하는 또 다른 언니들(이대 무용

과의 못생기고 몸매 안 받쳐주는 이들의 모임)의 "절레꽃" 무용은 진짜 한 뼨쓰였다. 그 처절한 몸부림! 무대가 좁아서 언니의 역동적인 모습을 다보지 못했던 것이 아쉬웠다.

여성운동하는 사람들의 고뇌를 담은 연극도 다른 사람들(윤경이언니와 양녀, 뽕뽕이)의 찬사를 억수로 많이 받았지만, 랑네는 조는 바람에 잘 모르겠습니다. ^ ~; 죄송~

문화적으로 앞서있다는 서울에서 곳 한 판은 대구 촌년의 눈을 휘둥그래지게 만들었다. 대구에서는 더 멋진 행사를 반드시 만들어 보겠다고 굳게 다짐하던 랑네는 9월이 되어서야 이 글을 쓴다.(애라이~)

고마에서 본 또 다른 시인 조미희 님의 '자유'를 신송니다.

몇번이나들었던가

"붙어 참 잘하시네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왜 한국말을 못하세요"

여기에서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내 얼굴만 보냄 알 수 없지

거기에선

소리와 단어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내 상상의 영토에서 맴도는데

여기에선

모호함과 특수함은...분식되고

단어들의 본능은... 서너번씩.

그래

이제 됐어.

자유

◆한일 학생 교류회를 다녀와서◆

차루

‘한·일 청년 학생교류’에 1312모임의 회원 4명이 참가했다. 행사 시작 하루 일찍 도착해서, 이대 근처의 ‘라브리스’라는 레즈비언 바에 가서 촌스럽게 구경도 하고 술 먹었다.

여느 카페와 별 다름없어 보이는 인테리어였으나, 남자 손님은 없었고 여성들끼리 쌍쌍으로 군데 군데 앉아 있었다. 문화 충격을 기대했던 나로선 그 평범함에 약간 김이 빠졌다. 행사 프로그램에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전날 지나치게 한잔한(윤경이 집에서 밤샘) 우리 1312 회원들은 당일 출발시간을 맞추지 못해, 큰 대형버스에 대구에서 온 시민모임과 1312회원들만 타고 가는 영광아닌 영광을 누렸다.

나눔의 집은 ‘낮은 목소리’ 영화에서 보았던 대로 자연 속에 포근히 안긴 형태로 독특한 외형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위에 별장이 너무 많았다.) 나눔의 집 할머니들이 앞에 앉아 계시고, 할머니들을 둘러싸고 일본 측 참가자들, 한국 학생들이 섞여 앉아 작은 토론시간을 가졌다.

짧게 자기가 속한 단체와 이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할머니들의 짙막한 증언이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삶을 담은 비디오클립을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일본인 참가자들에겐 직접 할머니들을 만나서 얘기나누는 시간이 많은 감명을 준 것 같았다.

한양대로 돌아와서 주제별 토론시간을 가졌는데 동북아시아 관계에 대한 토론과 과거사 청산을 주제로 이야기가 있었다. 각 팀에 참가한 학생대표가 토론 요약과 함께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행사에 참가한 일본 학생들은 3세 교포로 구성된 한학동 친구들과 일학연이라는 일본 학생단체들이 참가하였다.

한·일 학생 교류는 1312회원들에게 일본의 의식 있는 젊은이들을 만나게 해 주고, 직접 역사의 현장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우리가 좀 더 외국어에 능통해서 일본의 젊은이들과 깊이있게 과거사 문제나 문화차이 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이 많이 들었다. 1312의 외교적 역량을 드높여야 하지 않을까?

한 뉴스

<프로 여자복서 등장한다>

사각의 링 안에서 벌어지는 격투기 복싱. 국내에선 구미 선진국과 달리 아마추어·프로 선수를 막론하고 복서로 등록된 여성은 한명도 없다. 북한에서만도 체육전문학교 중심으로 1백 여 명의 여성 아마추어복서가 활동하고 있다.

사실 국내에서 여자복서들의 시범경기는 이미 34년 전인 64년 한국 밴텀급 타이틀매치전에서 선보인 바 있다. 그러나 공애자와 홍정숙이 4회전을 치뤘던 이 독특한 시범경기 이후 공백은 상당히 컸다.

97년에 가서야 한 프로모션이 두 차례에 걸쳐 러시아 여자복서들을 초청하여 4회전 시범경기를 선보였을 뿐이다. 그러기에 이번 여자복서들의 시범경기는 최초로 정식경기도 아니지만 꽤 오랫동안, 그것도 세계 타이틀매치라는 권위있는 시합에 앞서 펼쳐지는 시범전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공교롭게도 시범전의 두 주인공 이선미와 김정애 선수 모두 변정일 복싱클럽의 훈련생들로 56Kg의 페더급이다.

이선미(23)선수는 고등학교 때 합기도장에 갔다가 우연히 복싱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의 모습에 매료돼 복서를 꿈꾸기 시작했다. 그러나 어렵게 찾아간 복싱훈련장에서 “기집애가 에어로빅이나 하지 왜 남자들에게 걸리적거려느냐”는 핀잔이 고작이었다.

김정애 선수(22)가 복싱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97년 간간히 보도된 해외화제 중 여자복서들의 모습을 접하고 복싱이 남자만의 경기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게되면서부터다.

경상전문대 관광학과 졸업후 타워호텔 피트니스 클럽에서 근무하며 틈틈이 시간을 내 훈련을 받고 있다. 그는 이씨와 달리 전문 직업인의 길은 끝까지 포기 안할 결심이다.

복싱 입문 초기에 부모님의 “기집애가 미쳤다”는 등의 ‘강성반응’으로 고생한 경험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이선미씨의 경우, 교사인 남자친구가 많이 반대해 한동안 힘들었다. 여자복서들에 대해 “짜고 하는 것 아니냐”, “때려도 아프거나 하겠느냐” 등의 편견도 이들에게겐 버거웠다.

“사실 경량급 경기들은 남자복서들이 나와도 장난감기만 해요. 우린 처음이니까 있는 그대로 편하게, 그러나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해요. ‘아유, 기집애가 웬 복싱이야’라는 반응만은 절대사절입니다”고 이들은 입을 모은다.

(여성신문 참조 - 박이 은경 기자)

▼ 똑같은 세상에 대한

시비쟁이들의 반란 ▼ 양녀

지난 8월 12,13,14일에 안산 한양대학교에서 청년대회가 열렸다. 통일, 실업, 과학운동, 독립영화, 성 등 다양한 주제운동 단위들이 모여서 2박 3일동안 많은 행사들이 있었다. ‘1312’에서는 ‘똑같은 세상에 대한 시비쟁이들의 반란’이라는 모토로 똑같은 성문화에 도전한다-포르노, 매매춘 문제 읽기-와 고정관념 깨기, 동화 바꾸기,레즈비아니즘이 있었다.

각 주제별로 준비단위들이 있고, 나머지는 자기가 참가하고 싶은 주제마을을 돌아 다니는 것이다. 우리는 준비단위여서 안타깝게도 다른 주제마을에 참가할 수 없었지만 전야제와 자치문화제, 독립영화상영이 있어서 나름대로 새로운 문화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

성팀에는 약 10명가량의 사람들이 같이 토론을 했는데, 남학우들이 특히나 많이 참가해서 포르노와 매매

춘에 대한 남자들의 입장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다.

자치문화제때에는 각 주제팀과 참가학교들이 촌극, 퍼포먼스, 노래, 몸짓 등을 했는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팀에서 진행한 동화바꾸기 ‘인어공주’와 노래바꾸기가 가장 잘하지 않았나 싶다. 참가한 동안은 즐거웠지만 사실 아쉬운 점이 더 많다.

방중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줄줄이 겹쳐서 무리하게 진행하느라 1312 식구들도 많이 참가하진 못했었고, 준비과정에도 모두가 참가하지 못했다. 1312 식구들은 다들 왜 그리 바쁜지, 특히나 짜루는 미국까지 갔다 왔고, SCA에서 공동체 농활을 갔다오느라 긴 시간동안 수고를 했다. 청년대회 이후 그 성과물을 계속 이을 수 없었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었고, 그때 자료집이 지금 1312 방에 있으니 한번쯤 읽어두면 좋으리라.

모두모두 수고했습니다.

▶ 활동 보고 ◀

▶ 8/12-14 안산 한양대에서 “우울한 세상을 바꾸는 즐거운 혁명” 참여 자치 연대 청년대회가 열렸다. 1312가 <성>팀을 준비하여 열띤 토론장을 열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고민을 했었다. 수고한 양녀, 랑네, 뽕뽕이에게 박수틀...

▶ 8/21-23 서울 동국대에서 성폭력 근절과 여성권 확보, 여성운동 대토론회를 위한 여성연대 한판이 있었다. 멀리 서울까지 가서 많은 고민거리들을 안고 왔다. 대경에도 연대회의를 만들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다.

▶ 8/24 98 여성문화제와 3회 여성영화제에 많은 1312가 참여하고 있다. 본격적인 준비를 위해 다들 총여에 모였었다.

▶ 8/31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대경 여성연대회의를 서울 연대회의를 다녀온 후

드디어 만들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준비단계인 대경 여성연대회의(가칭)의 1차 모임을 경대에서 가졌었다.

효대(성정치 위원회), 계대(자치모임), 경대(사회대 여학생회), 영대 (1312)로 구성된 대경 연대회의는 열악한 대경지역의 여성운동토대를 더욱 비옥하게 만들 새로운 시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더 나은 여성운동을 위해 서로의 상황을 공유함과 동시에 연대의 무한한 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 9/3 1312 2학기 첫 모임을 시작으로 2학기 활동계획을 잡았다. 2학기에는 좀더 멋진 1312가 되길 기원한다.

▶ 9/7 대경연대회의 2차 모임을 가졌다. 대학이라는 공간 속에서 여성운동에 나아갈 방향과 운동방법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하다 막차를 타고 모두들 집에 돌아갔다. 늘 열심히 하는 여성동지들을 보면서 더 힘내야겠다.

▶ 9/14 대경 여성연대회의 3차 모임을 가졌다. 그리고 9/15-18까지 경북대 사회대 여학생회에서 열린 2회 마녀 문화제 행사에 참가했다.

▶▶ 연대 파트너 근황 소개 ◀◀

◎ 영남대 총여학생회에서 2회 여성문화제가 9/ 9-11일까지 영대 곳곳에서 열렸다. 1312 식구들도 자봉단 등으로 많이 도왔었고, 영남대 내에 새로운 여성문화형성을 위해 수고하신 총여식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 짹짹

◎ 대구 경북지역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개소식이 지난 9일에 열렸다. 광병원 뒤쪽 건물 좁은 공간이지만 이날 행사는 길놀이와 현판식 그리고 고사가 있었고, 한국 여성운동의 대모이신 이효재 선생님의

강연도 있었다.

영대의 기흥이 선배가 이제부터 간사로 같이 일하게 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다음 모임은 26일 2시 윤경재단 지하에서 있다. 할머니들께서도 모두 건강하셨고 서봉임할머니께서 퇴원하셨다.

<광고>

● 1312 2학기 정기모임은 매주 월요일 3시입니다. 많이들 참석하세요

● 1312 2학기 과제로 모임의 안정화와 회원 모집 그리고 우리 모임 알려내기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2학기부터 장기적으로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할 것입니다.

● 9월 21-30일까지 영남대 여성주의 자치모임에서는 '학내 성폭력근절과 여성의 성적 자율권 확보를 위한 직접행동주간'으로 정하고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우리의 행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 학내 성폭력근절 주간은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며, 대경에서는 계대와 영대가 같이 진행하고 있고, 경북대는 마녀 문화제 안에 같이 진행했습니다.

● 1312 회원 여러분 한달에 한번 내는 회비가 3,000원입니다. 다들 너무 하소연하고 회비 잘내는 착한 시비쟁이들이 됩시다.

● 8월 소식지가 이제서야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9월 소식지는 꼭 10월 초에 늦지 않게 올립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 대구 경북지역 여성 연대회의(가칭)가
태어납니다 ★

올해 초부터 대경지역에서도 대표자 회의가 아닌 여성 운동을 하는 친구들을 모아 연대회의를 꾸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생각만큼 선이 닿질 않았고 결국엔 손을 놓고 말았다. 그러나 얼마전 여성운동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기 위한 '여성 연대 한판' 이 서울에서 열렸다.

방중에 1312가 준비한 '여성주의 캠프'를 통해 친분을 쌓은 경대 사회대 여학생회와 효가대 성정치 위원회, 계대 자치모임 친구들이 참가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모두의 동의에 의해 대경에서도 연대회의를 만들 것을 결의 했다.

대경이라는 열악한 공간에서 여성운동을 하던 우리는 소수의 대학이라도 먼저 모여서 연대회의를 준비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고 지금까지 4번의 모임을 가졌다. 각 학교마다 상황과 입장은 모두 달랐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더 열심히 여성운동을 하고 싶다는 결의와 더불어 '연대'가 너무 목말랐음이 느껴졌다.

경북대에서 가진 첫모임 때는 각 학교상황을 먼저 공유하고 연대회의 상을 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 모임때는 성폭력거 방지 주관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이야기 했다.

뿐만 아니라 각 학교마다 전부다 자치모임이나 위원회 등 새로운 여학생운동의 방법과 조직상에 대해 고민하고 있던 터라 막차가 끊기기 전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했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경북대에서 2회 마녀문화제를 했었다. 이틀이나 각 학교친구들이 열심히 참가해서 연대력을 과시했으며, 같이 밤새면서 새로운 여학생회 상을 잡기도 하고 성폭력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는 모기와 다미(성폭력 상담소 학내지원팀 친구)와 같이 밤새 놀기도 하고 성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아직까지 연대회의에 대한 완전한 상이 잡힌 것은 아

니다. 아마 몇 달간은 여러차례 모임을 가지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고, 겨울이나 내년 초 쯤에는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 정식으로 발족하지 않을까 한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대경에서 힘들게 여성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새로운 희망을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경 여성운동의 미래는 바로 우리들의 연대 속에서 더욱 발전할 것이며 그 가능성의 실천적 토대에 불을 당긴 것이다.

아직 시작에 불과하지만 모두가 목말라했던 공간이라 서로가 아끼면서 안정화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언가를 새로이 시작 한다는 것은 언제나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선다. 첫 테일을 끊는다는 것에 어깨가 무겁지만 또다시 다음 모임을 기대하면서 대경에서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은 늘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추천 비디오 <건 포 제니퍼> ♠

코에는 코? 눈에는 눈? 강간하는 남자. 가정 폭력을 일삼는 남자를 골라 죽인다면? 폭력을 폭력으로 갚는다는 것은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것을 극단적으로 그려 낼 수도 있는 장점이 있다. <건 포 제니퍼>는 바로 그런 영화이다. 강간을 당하고 매맞던 여자들이 뭉쳐서, 그런 피해자 여성들을 구해내고 복수를 하는 영화이다. 가끔은 이런 영화를 보면서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과격한 모습에 거부감을 느낄 수 있지만 배랑끝까지 몰린 여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구조를 읽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건 포 제니퍼>를 보면서 거부감이 예상되시는 분은 <델마와 루이스>와 <안나 이야기>를 먼저 본다면 훨씬 충격이 완화될 것이다.

기획글

▶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제정의 필요성

학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모든 대학 구성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성폭력이라는 사건은 대학 사회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설문을 통하여 성폭력 가해자를 조사해 보면, 물론 학생에 의한 것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직원과 교수에 의한 성폭력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학 사회 내에서 완전한 성폭력의 근절을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뿐 아니라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성폭력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성폭력의 근절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학내 구성원들의 동의에 기반하기에는 자치규약이라는 것은 학생들만의 그것이 될 수 있기에 그 힘이 미약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학칙'이라는 틀거리를 택함으로써 모든 대학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하에 공동체 내의 성폭력을 근절하고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학내 구성원의 성적 자율권 뿐 아니라 학습권도 보장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성폭력이라 함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하지만 성폭력이 대학 사회에서 발생하면 조금 다른 양상을 띤다. 다시 말하면 대학 사회내에서의 성폭력은 피해자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제까지 대학 사회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성폭력 사건 속에서 대다수의 경우 가해자도 아닌 피해자가 스스로 그 공동체 내에 적응하지 못하며 공동체에서 배제당하거나

떠나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해자가 자신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던지게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은 대학 공동체 그 자체였다.

대학 사회의 구성 목적이 교육에 있다면 교육 받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학내 구성원들에게 마련해 주는 것은 대학당국이 책임져야 하는 몫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대학당국은 성폭력 사건 속에서 학내 구성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학내 구성원의 당연한 권리인 학습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기제로서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이 필요한 것이다.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은 대학 사회의 새로운 성문화를 명성하여 사회적으로 유효시킬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의 목적은 '처벌' 뿐 아니라 대학 사회 내의 성문화에 대한 '문제제기'의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학칙을 통하여 우리는 대학 사회 내의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단순히 순간순간의 성폭력이라는 사안을 통해서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학칙'이라는 확실한 기제를 바탕으로 하여 대학 사회 내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사회가 사회에서 가지는 역할을 보면 많은 면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대학 사회의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우리는 인정하며, 성폭력 학칙을 통하여 형성된 성문화 역시 사회적으로 유효될 수 있을리라 생각한다.

대학 사회는 구성원이 끊임없이 바뀌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구성원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성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으로 우리는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을 주장한다.